

대광위, “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만전”

- 29일 인천 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찾아 활성화방안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)는 8월 29일 오후, SK E&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찾아 관련 인프라 및 인천시 수소버스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, 향후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논의하였다.
- 정부는 「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(’21~’40)」에서 전체 광역버스 중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5%, 2040년까지 50%로 확대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,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중 40여대를 운행 중에 있어 향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.
- 강희업 위원장은 “현재 광역버스는 기존의 압축천연가스(CNG) 차량에서 친환경 연료인 전기, 수소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단계로, 그 중에서 짧은 충전으로 길게 운행할 수 있는 수소버스가 주목받고 있다”고 하며,
- 특히, “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여, 수소 버스의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- 이후, 강 위원장은 인근의 수소버스 충전소도 방문하였다. 이 자리에서 충전 시설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, “친환경 버스 전환 기조에 발맞춰 수소연료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- “수소버스에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, 버스 차고지 인근의 수소 충전소 확보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4. 8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